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기획전

양승원 개인전 《경계의 에포케》

2025. 4. 25. (금) ~ 7. 20. (일)



- 뮤지엄한미 MH Talent Portfolio 10주년, 선정작가 양승원 개인전 개최
- “이미지를 구부려 설치로” 사진 매체를 확장하는 양승원의 실험
- 관람자가 이미지와 공간 사이를 유영하며 감각하는 전시

전 시 소 개

■ 뮤지엄한미는 <24/25 MH Talent Portfolio>를 통해 선정한 양승원의 개인전 《경계의 에포케》를 2025년 4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삼청별관에서 개최한다.

■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MH Talent Portfolio>는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국내 30~40대 젊은 작가들의 성장과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순히 역량 있는 작가를 선별하거나 이들의 작업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가가 구상 중인 작업의 실현 가능성을 미술관의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작가는 1차 포트폴리오 검토 후, 2차 작가 프리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외부 리뷰어 및 동료 작가, 미술관 학예팀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6인은 각자의 방향성과 시기에 맞춰 개인전, 2인전, 해외 리뷰 그리고 사진집 출간 등의 프로그램에 매칭된다.

■ 올해 개인전 작가로 선정된 양승원은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해 합성, 렌더링, 입체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의 변형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실재와 가상,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진이라는 매체가 지닌 고정성이나 객관성의 환상을 걷어내고, 그 유동성과 가변성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로 구현하고자 한다. 작가 선정에 참여한 외부 리뷰어 3인(구본창, 석재현, 송수정)은 양승원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개념적 틀을 이번 전시를 통해 하나의 구조로 집약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전시 제목 《경계의 에포케》는 판단을 보류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현상학적 개념 '에포케(epoché)'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경계'를 고정된 선이 아닌, 실재와 비실재, 변화 이전과 이후를 넘나드는 흐름의 상태로 정의하며, 사진과 이미지에 대한 특정한 판단을 잠시 멈추고 그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길 제안한다. 이러한 경계는 작가의 사진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개인의 '기억'과도 연결된다. 기억은 사회적 경험과 외부 환경에 따라 지속되거나 변형되며, 때론 망각되기도 한다. 작가는 이러한 유동성을, 환경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시각화한다. 흐르고, 담기고, 멈추는 물의 속성은 곧,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조합되는 기억과 이미지의 메커니즘을 은유한다. 양승원은 알루미늄 패널 위에 프린트한 물의 이미지를 손으로 구기고 물리적으로 변형시켜, 사진이 입체 오브제로 전환되는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이 입체 이미지와 공간 사이를 유영하며, 기억과 이미지의 유동성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 전시 연계 도록에는 작업의 과정을 보여주는 알루미늄 패널 위에 프린트된 구겨지기 전의 렌더링 이미지와 전시장 전경 사진이 함께 수록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이미지가 전시와 책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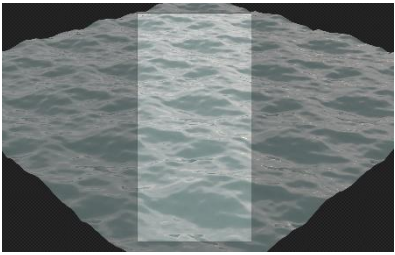
는 서로 다른 매체에서 어떻게 조형적으로 구현되고 인식되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작가의 작업노트와 뮤지엄한미 김선영 학예연구관의 전시 기획노트, 서울시립미술관 손현정 학예연구사의 비평문이 함께 실려 있어 작가의 사유와 전시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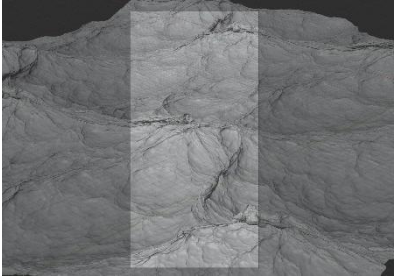
■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관람객 참여 워크숍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4월 26일(토)에는 전시작을 비롯하여 그간 진행한 여러 작업을 통해 작가의 작업 세계 전반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6월 14일(토)과 28일(토)에는 작가의 작업 방식을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관람객과 작가가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에서는 각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전시작 형태로 재현해보는 시간으로 꾸러지며, 홈페이지를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시기간 내 전시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과 어린이·가족 대상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가 프로필

양승원(b. 1984)은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를 졸업하고 런던예술대학교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승원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실과 가공의 경계를 흐드는 유사 이미지를 생산, 인식론과 사진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근에는 경험과 기억, 느낌과 감정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직접 보지 않은 무경험의 풍경을 만들거나, 납작하고 가벼운 사진의 매체적 특성에서 벗어나 기억의 파편처럼 액자 밖으로 꺼내어 조각적인 형태로 풀어낸다. 주요 개인전으로는《Overwrite》(N/A, 서울, 2022), 《Glimpse》(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 서울, 2021), 《Covered Moment》(하이트컬렉션, 서울, 2019) 등이 있으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서울, 2024),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고양, 2023), 금천예술공장(서울, 2022), ACC아시아창작스튜디오(광주, 2021), 경기창작센터(안산, 2017), K'ARTS 창작스튜디오(서울, 2016)에 입주 작가로 선정되었다.

홍보용 이미지 목록

No.	작품 이미지	캡션 및 상세정보
1		《경계의 에포케》 전시 전경, 2025 ©양승원
2		《경계의 에포케》 전시 전경, 2025 ©양승원
3		《경계의 에포케》 전시 전경, 2025 ©양승원
4		《경계의 에포케》(work in progress), 2025 ©양승원

5		《경계의 에포케》(work in progress), 2025 ©양승원
6		〈24/25 MH Talent Portfolio〉 프레젠테이션 중인 양승원 작가 뮤지엄한미 제공
이미지 요청 및 문의 김소정 02-733-1315 sojeong@museumhanmi.or.kr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다운로드 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양승원 경계의 에포케

※ 이미지 및 추가 자료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주소: 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전 시 개 요

전시제목 : 양승원 개인전 《경계의 에포케》

전시기간 : 2025년 4월 25일(금) ~ 7월 20일(일)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11)

전시작품 : 설치 24점

주 관 : 뮤지엄한미

기 획 : 뮤지엄한미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관람시간 : 화-일 10:00 ~18:00(매주 월요일 휴관)

문 의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대표전화 02-722-1315, museum@museumhanmi.or.kr

※ 이 전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 및 개막 행사 없이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접속

ID: hanmimuseum / PW:1315 로그인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양승원 경계의 에포케